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7월 14일 (제1262호)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불을 붙이려면

얼마 전까지 기도원 공사가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하계집회 기간 중 우리 성도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하는 대공사였다. 이 일에 기도원 직원과 신학생, 뜻 있는 주의 종들과 장로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나도 기도원에 내려가 그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하며, 진두지휘했다.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일의 진행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알기에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원에 내려간 것이다.

불의 특징은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로 보면 내가 불이 붙어 있어야 그 옆에 있는 자에게도 불이 붙는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자들도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가지면 주위 사람도 열정적이 된다는 것이다. 열심(熱心)이 뭔가? 뜨거운 마음이요, 열정(熱情)도 뜨거움으로 불붙은 마음이다. 내 열심과 열정이 그들에게 전달되니 함께 큰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2002년 가나 집회 때였다. 가보니 광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직접 전단지를 들고 시장에 나가 노방전도를 했고, 각 방송사를 섭외하여 집회를 광고했다. 내가 열정을 갖고 뛰니 나태하던 주최 측도 그제야 불이 붙어 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집회를 성공할 수 있었다. 남을 불붙이려면 내가 훨훨 불이 타고 있어야 한다. 날장작도 그런 자 옆에서는 불이 붙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요한에게 성령세례를 받아 스스로 불붙으셨고, 그 불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에게 붙었고, 불붙은 제자에게서 점차 확산되어 우리에게까지 번진 것이다.

그 불이 붙은 나도 가만 있을 수 없어 이 나이에도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야 그 불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것 아닐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

남을 불붙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불을 붙이자. 그러면 남도 불붙여 세상은 변화되고 발전되리라.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찾아주러 왔다

지난 2014년 베네수엘라(Venezuela) 바르가스(Vargas) 집회 후 정확히 10년 만의 방문이었다.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숨길 수 없었던 것은 지난 2010년의 성공적인 목회자 세미나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대는 카라카스(Caracas) 공항에 도착하고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이민국에서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1시간 넘게 붙잡아놓고 들여보내질 않는 것이다. 전 같으면 공항 VIP 통로를 이용하여 손쉽게 입국할 수 있었을 텐데 조짐이 이상했다. 마땅히 앉을 자리도 없이 1시간 이상을 세워놓더니 가까스로 입국을 허락해주었다.

입국장에서 걱정스런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던 이현숙 선교사와 라구나(Laguna) 목사, 그리고 루이스(Luis)목사 또한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숙소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루이스 목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10년 사이에 엄청난 정치적 변혁과 코로나 여파가 베네수엘라를 흔들고 있었다. 사실 처음 베네수엘라에 들어왔던 2008년부터 우리를 도왔던 권력자들은 차베스(Chavez) 혁명 세력이었다. 익히 잘 아는 에드가르(Edgar), 목사님이 데이빗(David)으로 이름을 바꿔준 전 경제부 장관 겸 중앙은행 총재나 바르가스 집회를 도왔던 전직 국방장관이자 바르가스 주지사였던 가르시아(Garcia) 모두 차베스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차베스를 이어 대권을 쥔 마두로(Maduro) 정부는 차베스 사후 점차 그의 혁명 동지들을 숙청해나갔고, 지금은 그들 모두가 권력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거치며 가르시아 주지사는 코로나로 사망했고, 교회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28일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데, 현 정권은 법을 바꿔 3선에 도전하는 상태이고, 기독교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자 교계가 이 후보를 밀고 있다고 판단한 현 정권이 교계를 압박하고 있단다. 그 증거로 이번 세미나 장소, 곧 지난 2010년에 세미나를 열었던 그 장소 사용을 일정에 임박해서 취소시켜버리지 않나, 교회 건축을 위해 갖고 있던 루이스 목사 교회 부지를 정부에서 몰수해버렸다고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었다. 루이스 목사는 부랴부랴 장소를 옮겨 농구장을 빌렸는데, 그마저도 체육관 측에서 바닥이 상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더란다. 바닥 보호재를 깔아 문제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고서야 겨우 사용 허락을 받아 집회를 열 수 있었다고 한다.

엄청난 훼방이 휩쓸고 있었다. 루이스 목사는 목사님께 절대 정치적 발언은 삼가주실 것을 신신당부했다. 교회 부지도 뺏기고 야심 차게 준비한 세미나조차 정권으로부터 큰 타격을 입자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목사님은 10년 만에 찾아온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더니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궁금했던 데이빗은 집회에 참석하여 목사님과 기쁨의 조우를 했지만, 끈 떨어진 연처럼 한낱 힘없는 필부의 모습에 더욱 현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그와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하셨지만, 정치적 위협을 걱정하는 루이스 목사로 인해 그마저 무산되었다.

그나마 밤늦은 시간에는 모이지 못하게 하여 집회 시간을 오후 4시로 변경하는 바람에 목사님은 시차와 싸워야 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난관을 이겨내셔야 했다.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하고 가자고 말씀하시며 목사님은 잠도, 식사 시간조차 반납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몰두하셨다.

목사님은 정치권력 앞에 잔뜩 움츠린 베네수엘라 교회를 향하여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권세 회복을 촉구하셨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회개의 기도가 쏟아졌고, 성령의 임재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고 떠나가며 소경이 눈을 뜨고 목발을 던지며 걷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수도 카라카스를 뒤흔들고 있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2024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집회

성령의 역사

목사님을 영접하는 주최측 인사들

예수 이름으로 목발을 들고 뛰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5:1~10)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것인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 방법을 잘 모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엡5:10)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후5:8~9). 하나님과의 동행(同行),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제가 목회 40년을 지나오면서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른 제자, 내가 기름 부은 장로가 저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단에서 '오는 사람에게도 카펫 깔아주고, 가는 사람에게도 카펫 깔아준다.' 하니까, '눈 같은 사람이 떠나도 나는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하니까 제가 성도들이 떠나도, 제자들이 떠나도 무덤덤한 사람처럼 느끼셨다면 오해입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무너집니다. 가끔 일기장을 뒤지다가 그들의 이름이 나오면 여전히 가슴이 아리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한없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루시퍼로 인해서 그러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배반할 때 그러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물로 쓸어버릴 때 하나님이 통쾌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창6:7). 한탄(恨歎)하는 게 뭡니까? 속이 상해서 한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질 때도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며 한탄하셨습니다(삼상15:11).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났으면 하나님에게 '또 나를 떠나면 어쩌지?'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셨겠습니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신8:14).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시간을 쪼개어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일어나려고 하면 '벌써 가냐?' 그러시면서 아쉬워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걸로 기뻐합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이런저런 일로 근심을 쉬 없이 안기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흐뭇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주의 종들, 장로들은 제 속을 한 번도 안 썩였을까요? 다 제 맘에 쏙 들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럼에도 그들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기쁜 것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3:1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적혀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이들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이들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서 하나님이 자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속도 썩이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 자들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중에서 '에녹'이란 사람은 딱히 한 일이나 업적에 대해 적혀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히11:5).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막3:14). 함께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먼저는 '전도하려고' 택했다 생각하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택하셨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이는 '제발 떨어지지 말라.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6~18)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요6:67),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6:55)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며 떠났을 때 남은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6:68)라고 답합니다. 사실 열두 제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정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믿었던 베드로도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어쩌면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살이 패는 채찍보다 제자들의 배신이 더 아프고 슬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 같은 것이 감히 주님과 동행하다니요?'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부족해도, 향기 나는 삶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실한 열매가 없어도, 극상품 열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으로 인해 점차 변화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 향기 나는 삶, 극상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없어지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엡5:3~5).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갈5:22~23).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부디 주님과 동행하시어 주님의 기쁨 덩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미국 대통령 선거

1960년대 이후 미국 정부는 소비와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최근까지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AI 및 관련 반도체를 활용한 첨단 제조 국가로 변신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을 세수가 아니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들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출을 집행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2023년부터 미국 재무부의 긴축, 연준의 화폐량 증가 축소에도 자본시장이 위축되기는커녕 강세를 보인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서만 빠르게 유통되도록 하면서 실물시장과 차단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었으나 자국의 민생은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MMF 계좌에는 한화 기준 7,000조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고 이 자금들은 주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초단기 채권과 연준에서 운용하는 역레포에 재투자되어 참여 중인 기관과 헤지펀드들은 5.3% 이상의 보장수익,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활용하여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채에 대한 차환 발행,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현 정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120년간 미국 대선 역사를 분석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40년간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온 릭트먼(Lichtman) 교수는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결정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사임하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현직으로 출마할 경우에만 정권 재창출의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각종 여론조사와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2025년 종료 예정인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을 연장할 것이고, 중국 및 동맹국에게까지 차등적 수입 관세도 적용하며 재정정책은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10년 만기 미국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상향될 것이고 수입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또한 급격히 상승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혈맹이자 시장입니다. 이를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난 80년간 축적되어온 양국 관계가 존속되도록 모두가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 오늘의 메시지 ::

늦은 시작은 없다

미국의 어느 노인이 은퇴 후 노인 클럽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에게 봉사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림을 배워보시면 어떠세요?"

"에이~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그림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더 문제 같은데요?"

봉사자의 말에 생각을 바꾼 할아버지는 곧바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할아버지는 101살에 22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던 미술가 '해리 리버맨'이다.

그는 말한다.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늙거나, 늦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을 뿐이다.

목사님도 70이 넘으셔서 그림을 시작하여 벌써 100점이 넘게 그리셨다고 말씀하지 않나? 또한 75세의 연세에도 수많은 집회와 해외 선교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있다.

혹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으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도전을 시작하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100세에 이삭을 출산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히 말했다.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출발한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자.

김상욱 목사

:: To Be Succeeded ::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

한 탈북 자매의 이야기다.

탈북 후 복음을 접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녀는, 같은 탈북 청년 형제와 결혼하여 함께 전도사와 사모로 헌신하게 되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하루 두 끼 금식과 온밤 철야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루하루 지키며 사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공동체를 힘 있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 잡혀 들어간 중국과 북한 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감옥 안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감시하는 간수들조차 함부로 그 사역을 제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담대하게 증거한 그녀는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던 때처럼 해같이 빛났다고 그녀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된 탈북민들이 증언한다. 이후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들이 지금은 주의 종들이 되어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자신을 구원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매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이며, 그녀의 면류관이요, 상급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더니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었고, 살인자요 포획자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었다. 사도들과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로마와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

개개인의 삶의 형태는 모두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녁의 정 중앙점은, 바로 내 영혼 구원이며, 또한 삶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다.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이국진 사모

:: 낮은 울타리 ::

재테크, 근테크, 기테크!

최근 '근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근테크란 근육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노후를 위해 근육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재테크를 통한 자산 관리가 노후에 금전적인 안정을 준다면, 근테크는 근력 운동을 통해 육체적인 안정을 줍니다. 한 아산병원 노년 내과 교수는 '노후에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라고 표현하며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근육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분이라도 나가서 걷자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주에는 20분, 그다음 주에는 40분, 그리고 지금은 걷기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력 운동도 함께 하여 한 시간 넘게도 거뜬히 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검사해보니 운동을 하기 전보다 근력도 붙고 체지방도 줄어 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할 땐 5분 걷기였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운동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그것들이 저의 근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테크와 근테크 모두 잠깐 반짝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길게 끌고 가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재테크, 근테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테크(기도 + 재테크)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빠 삶에 여유가 없을 때도 내 선택과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의 근력이 됩니다. 노후보다 더 중요한 사후를 책임지고, 더 건강한 영과 혼을 책임집니다. 운동처럼 처음에는 5분도 힘들지만 나중에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어 1시간도 거뜬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쌓여 기도의 독이 넘쳐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테크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작정 기도 기간에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구하는 기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습관 따라 하는 기도'가 나의 영적 건강과 사후를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은 노후와 사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장수정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불안

'무지'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캄캄한 동굴, 깊은 바닷속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정체를 명확히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귀신을 쫓습니다.

반면 '미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무지의 영역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가사처럼 당장 하루 뒤 벌어질 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사주나 운세, 점에 의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시대에 점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실체 없는 무언가에 의지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앞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가치에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 내 삶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한 길로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막연한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미래를 점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좇아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보다 앞서 길을 만들고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나요? 앞길이 캄캄하고 염려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삶을 조명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려놓고, 빛 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전소희
so2eej@naver.com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외할머니를 전도한 후, 어머니께서 종갓집의 모든 우상을 불태워 버렸는데, 외할머니께서 일가친척의 핍박에 못 이겨 다시 제사를 준비하다가 넘어져 한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외할머니를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 둘 수 없어 6남매 중 막내인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외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셨고, 매일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와 기도 녹음을 틀어 놓고 일생 중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지내시다가 소천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가문에서 처음으로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외할머니 생전에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시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장례예배를 통해 일가친척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작은 외삼촌은 오래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려 수차례 병원에 실려갔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지만, 외삼촌과 외숙모는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외삼촌의 병이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삼촌의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외삼촌을 그렇게 보낼 수 없으니 의식을 깨워서라도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한다며, 차 안에서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하나님이 외삼촌을 깨어나게 하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감긴 눈을 열고, 총회장 목사님께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깨어나라고 몇 차례 명령하자 갑자기 외삼촌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외숙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의식을 되찾은 외삼촌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환자의 보호자도 깜짝 놀라며, 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외삼촌은 가족들과 평안히 지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외삼촌의 장례예배에 일가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가문에서 두 번째 장례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수년 전 외할머니의 장례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친척이 하나둘 생겨났고, 어머니께서 맨 처음 복음의 씨를 뿌렸던 둘째 이모의 가정에서 목사님이 된 분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날 어머니께서 일가친척들에게 온갖 핍박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생전 외할머니께서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애절하여 안쓰럽기도 하고, 언제쯤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가친척들을 하나둘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때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법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정명관

:: 신앙에세이 ::

털어내다

작년부터 전에 없던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 한의원을 가보게 되었다. 한의사는 내게 그동안 있었던 증상들을 모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증상들까지도 다 말해보라고 했다. 경청하는 자세에 나는 기억 깊숙이 잊혀가는 증상들까지도 다 털어내었다. 한참을 들은 후 한의사는 한의학적 설명을 하며 자신과 함께 하나하나 고쳐나가 보자고 했다.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는 별다른 치료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마음은 벌써 다 치료를 받은 것같이 후련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편하게 내 말을 다 들어주어 증상에 따른 나의 염려와 걱정까지도 털어놓았는데, 모두 경청한 후에 함께 고쳐나가 보자는 그 말 자체는 이미 힐링이었던 듯하다.

어쩌면 내 곁의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얘기를 가만히 경청하며 다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보자 하면 될 것을,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고,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한 것은 아닌지.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마음이 힘들어져, 아예 그 속사정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또 내 모든 속사정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크리스천이다. 기도로 내 모든 것을 아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 그것 또한 함께 헤쳐 나가보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시66:19~20).

박찬영 집사
cross35@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